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

- 반도체·자동차 이어 세 번째 1조 달러 달성…1965년 최초 해외수주 이래 59년만
- 우리 해외건설의 국가경제 기여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
- 2024년 해외건설 수주 371.1억 달러…중동·유럽·투자개발 증가로 수주다변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집계 결과, 371.1억 달러를 수주하여, 누적 수주금액 1조 달러(1조 9억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성과는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 우리기업(현대건설)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59년 만에 달성한 쾌거이다.

< 해외건설 누적 1조 달러 달성 의의 >

□ 해외건설이 누적 1조 달러를 수주하기까지,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겪어왔다. 지역·공종·사업유형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지역 기준) 중동 및 아시아라는 강세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80% 이상) 해왔다. 다만, 최근 3년 간('22~'24) 북미·태평양(19.3%), 유럽(10.4%) 등 선진국으로 진출을 추진하면서 진출 지역 다변화 또한 이루어졌다.
- (②공종 기준) 196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토목·건축 분야를 수주해왔으나, 이후 원유 수요 증가 및 우리 기업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최근 3년 동안('22~'24) 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에서 강세(52.4%)를 보이며, 엔지니어링 등 용역 분야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 (③사업유형 기준) 그간 우리기업들은 단순 도급사업을 중심(90% 중반)으로 수주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설립, 글로벌 플랜트 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 등 정부 정책지원에 힘입어 2024년에는 투자개발사업이 전년 실적의 3.5배 수준인 51.7억 달러(전체의 13.9%)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 수주국가·기업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수주국가 누적 순위) 사우디아라비아(17.7%), UAE(8.4%), 쿠웨이트(4.9%), 싱가포르(4.8%), 베트남(4.8%) 순으로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최근 3년('22~'24) 기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24.5%), 미국(16.9%), 카타르(6.4%), 인도네시아(4.8%), 헝가리(3.6%) 순으로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도 다변화되었다.
- (②기업별 누적 순위) 현대건설(14.5%), 삼성물산(9.2%), 삼성E&A(9.0%), 현대ENG(7.3%), GS건설(7.1%) 순이고, 최근 3년('22~'24) 기준으로는 삼성E&A(17.9%), 삼성물산(17.2%), 현대ENG(15.6%), 현대건설(9.2%), GS건설(4.8%) 순이다.
- (③역대 수주실적) 1위는 UAE 원자력 발전소(191.3억 달러, '09), 2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80.3억 달러, '12), 3위 사우디아라비아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73.0억 달러, '24), 4위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72.9억 달러, '14), 5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68.4억 달러, '14) 순이다.

* 주택 10만호 사업 기준 / 이후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21.2억 달러, '15년) 수주로 총 101억 달러

□ 한편, 해외건설은 꾸준히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고, 그 기여 정도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 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건설수지 세계 1~2위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세계 20대 경상수지* 대국** 중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대비 건설수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13%)로서, 해외건설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건설수지 포함)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 독일, 중국, 일본, 러시아, 네덜란드, 한국, 싱가포르, 사우디, 노르웨이, 스위스 등(IMF 국제수지 통계)

- 또한, 2023년 기준 세계 20대 경제대국 중 우리나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수지 비율이 가장 높아(0.24%) 해외건설의 기여도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2024년 해외건설 수주 성과 >

□ 한편, 지난 2024년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371.1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무력충돌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건설 외교, 민·관협력 등의 성과로 254개 해외 건설 기업이 101개국에서 605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 2021년 306억 달러, 2022년 310억 달러, 2023년 333억 달러에 이어 2024년에는 371.1억 달러로 3년 연속 증가세(전년 대비 11.4% 증가)를 보이며, 2016년 이후 최대 수주액을 기록하였다.

□ 지역·국가·공종·사업유형별 세부 수주실적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로는 중동(184.9억 달러, 49.8%), 아시아(71.1억 달러, 19.2%), 유럽(50.5억 달러, 13.6%) 순이며,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119억 달러, 32.1%), 카타르(47.5억 달러, 12.8%), 미국(37.4억 달러, 10.1%) 순이다.
- 공종별로는 산업설비(243억 달러, 65.5%), 건축(52.4억 달러, 14.1%), 용역(38.1억 달러, 10.3%) 순이고,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319.4억 달러(86.1%), 투자개발사업은 51.7억 달러(13.9%)를 기록하였다.

□ 주요 특징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중동 지역 수주가 184.9억 달러로, 전체 실적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수주액으로, 주력 시장인 중동 지역의 수주가 다시 증가하면서 '제2중동붐'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이래 역대 최고 규모인 파딜리 프로젝트*(73억 달러)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 UAE 바라카 원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에 이어 역대 수주규모 3위

- 또한, 유럽 지역에서 전년 대비 139.7% 증가한 50.5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친환경 및 신산업 분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기업도 태양광 발전, 배터리 공장 등 신(新)분야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 2023년에 미국이 최초로 1위 수주국가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 유럽 지역 수주 실적도 대폭 증가하여 우리기업의 선진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향후 유럽·북미 인프라 시장 규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선진 시장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2024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51.7억 달러)한 투자개발사업 수주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KIND의 직접투자, PIS 펀드 등 정부의 정책 지원 성과가 본격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수주 지원효과 확대가 기대된다.

* 카타르 퍼실리티 E 담수 발전 플랜트, 튀르키예 나카스-바삭세히르 고속도로 등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에는 우리기업들이 해외건설 분야에서 전통적인 건설산업의 틀을 넘어 도시개발, 철도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중으로,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K-도시 및 K-철도, 투자개발사업 등을 통한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해외건설 수주실적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http://ocis.go.kr>)를 통해 1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별첨. 해외건설 누적 1조 달러 달성 및 연간 실적 관련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신형 (044-201-3516)
		담당자	서기관	김영지 (044-201-3517)
			사무관	정원림 (044-201-3520)
			주무관	이상직 (044-201-3522)
			주무관	진주형 (044-201-3524)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책임자	실장	이용광 (02-3406-1060)
		담당자	부장	김성진 (02-3406-1050)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1

해외건설 누적 1조 달러 관련 현황

□ **분야별 수주실적 분석** * 1965년 최초 진출 이후 59년 만에 1조 달러 달성

① 지역별 수주실적

(단위: 억 달러, %)

구분	개척기(65~75)		확장기(76~83)		침체기(84~93)		조정기(94~03)		도약기(04~14)		전환기(15~현재)		'22~'24(평균)	
누적	15.0		674.2		1,042.8		1,778.7		6,761.0		10,009.4		338.0	
기간실적	15.0		659.2		368.6		735.9		4,982.3		3,248.5			
중동	8.6	57.7	606.8	92.0	245.0	66.5	191.4	26.0	276.5	55.5	1,192.3	36.7	129.8	38.4
아시아	4.6	30.7	46.9	7.1	103.0	27.9	417.8	56.8	140.2	28.2	120.8	37.0	87.0	25.7
북미 등	1.5	10.0	1.5	0.2	12.7	3.4	35.2	4.8	197.4	4.0	312.1	9.6	65.1	19.3
유럽	0.0	0.0	0.0	0.0	2.4	0.7	39.4	5.4	147.3	3.0	250.6	7.7	35.2	10.4
아프리카	0.2	1.0	3.4	0.5	4.8	1.3	23.0	3.1	174.9	3.5	96.6	3.0	8.9	2.6
중남미	0.1	0.6	0.6	0.1	0.8	0.2	29.0	3.9	291.9	5.9	194.1	6.0	12.0	3.5

- '65년 이후 중동·아시아라는 강세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해 왔으나
 - 우리 기업의 기술력 및 신인도 상승 등에 힘입어 최근 3년간 ('22~'24) 북미·유럽 등 선진국 진출 강화 및 수주 지역 다변화

②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억 달러, %)

구분	개척기(65~75)		확장기(76~83)		침체기(84~93)		조정기(94~03)		도약기(04~14)		전환기(15~현재)		`22~`24(평균)	
누적	15.0		674.2		1,042.8		1,778.7		6,761.0		10,009.4		338.0	
기간실적	15.0		659.2		368.6		735.9		4,982.3		3,248.5			
토목	11.1	74.1	2278	34.6	1694	46.0	1559	21.2	663.3	13.3	573.0	17.6	31.6	9.3
건축	2.7	18.3	3210	48.7	1136	30.8	2219	30.2	693.6	13.9	602.7	18.6	86.8	25.7
산업설비	1.0	6.6	75.8	11.5	66.2	18.0	3350	45.5	3430	68.9	1765	54.4	177.3	52.4
전기	0.1	0.7	9.9	1.5	14.5	3.9	17.6	2.4	93.8	1.9	129.9	4.0	16.9	5.0
통신	0.0	0.1	14.5	2.2	2.0	0.6	3.4	0.5	11.2	0.2	5.6	0.2	0.6	0.2
용역	0.0	0.2	10.1	1.5	2.8	0.8	2.0	0.3	86.4	1.7	169.8	5.2	24.8	7.3

- '93년까지 주로 토목·건축 분야를 수주해왔으나, 이후 지속적 원유 생산수요 및 우리기업 기술 발전 등으로 산업설비 분야 진출 강화*

* 조정기('94~'03)부터, 업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동 플랜트 공사가 주력 공종으로 등장

- 최근 3년 동안('22~'24)에도 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엔지니어링 등 용역 분야 비중이 확대되며 수주 다변화

③ 사업유형별 수주실적

(단위: 억 달러, %)

구분	개척기(65~75)		확장기(76~83)		침체기(84~93)		조정기(94~03)		도약기(04~14)		전환기(15~현재)		'22~'24(평균)	
누적	15.0		674.2		1,042.8		1,778.7		6,761.0		10,009.4		338.0	
기간실적	15.0		659.2		368.6		735.9		4,982.3		3,248.5			
도급	15.0	1000	6592	1000	364.5	98.9	654.1	88.9	480.8	96.4	30744	94.6	312.5	92.5
투자개발	0.0	0.0	0.0	0.0	4.2	1.1	81.7	11.1	1805	3.6	174.1	5.4	25.5	7.5

- '65년 이후 지속적으로 단순 도급사업 위주로 수주하는 경향
- 한편, 투자개발사업에 대해 우리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지속적 정책 지원(KIND 출범, PIS 펀드) 등을 통해 수주비중 확대** 중

* 중국·튀르키예 등과의 가격경쟁 심화로 도급시장에서의 수주여건 악화 중으로, 기업들도 사업 결정권을 가지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개발사업 확대 모색 중

** 투자개발 수주액 : '22 10.2억 달러(3.3%) → '23 14.6억 달러(4.4%) → '24 51.7억 달러(13.9%)

- 특히, '24년에는 전년의 3.5배 수준인, 51.7억 달러(전체의 13.9%)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며 투자개발사업 활성화가 본격화



< 시기별 주요 이슈 및 상황 >

- (개척기 '65~'75) 해외건설 외화수입이 경제개발계획 자금원 역할, 수출전략산업으로 자리
- (확장기 '76~'83) 오일쇼크·유가상승으로 중동 건설 붐, 외화획득으로 국내경제충격 완화
- (침체기 '84~'93) 유가하락에 따른 발주감소, 우리기업 기술적 한계 등으로 실적 저조
- (조정기 '94~'03) IMF 외환위기 등으로 국가신인도 하락, 자금조달 문제로 수주 한계
- (도약기 '04~'14) 유가상승으로 석유화학설비·인프라 발주 증가, 사상최대 716억 달러 달성('10)
- (전환기 '15~현재) 유가하락·코로나 영향으로 발주감소, 저가 수주경쟁 지양 및 高부가 가치분야 진출 강화 ➡ '21년부터 3년 연속 수주실적 상승 중

□ 해외건설 수주실적 순위

① 수주 국가별 순위

(단위: 억 달러)

순위	누적 실적		최근 3년('22~'24년) 누적 실적	
	국가명	수주액	국가명	수주액
	합계	10,009.4(100.0%)	합계	1,014.1(100.0%)
1	사우디아라비아	1,775.5(17.7%)	사우디아라비아	248.7(24.5%)
2	UAE	844.7(8.4%)	미국	171.8(16.9%)
3	쿠웨이트	488.8(4.9%)	카타르	64.8(6.4%)
4	싱가포르	481.7(4.8%)	인도네시아	48.8(4.8%)
5	베트남	481.3(4.8%)	헝가리	36.9(3.6%)
6	이라크	424.4(4.2%)	중국	30.9(3.0%)
7	리비아	376.1(3.8%)	베트남	30.7(3.0%)
8	카타르	334.3(3.3%)	말레이시아	28.5(2.8%)
9	미국	276.1(2.7%)	이집트	27.8(2.7%)
10	인도네시아	269.9(2.6%)	필리핀	25.1(2.5%)
-	그 외	4,256.6(42.5%)	그 외	300.1(29.6%)

② 기업별 순위

(단위: 억 달러)

순위	누적 실적		최근 3년('22~'24년) 누적 실적	
	기업명	수주액	기업명	수주액
	합계	10,009.4(100.0%)	합계	1,014.1(100.0%)
1	현대건설	1,454.8(14.5%)	삼성E&A	181.2(17.9%)
2	삼성물산	924.0(9.2%)	삼성물산	174.4(17.2%)
3	삼성E&A	898.0(9.0%)	현대ENG	158.2(15.6%)
4	현대ENG	731.0(7.3%)	현대건설	93.3(9.2%)
5	GS건설	714.6(7.1%)	GS건설	49.1(4.8%)
6	대우건설	702.8(7.0%)	대우건설	29.7(2.9%)
7	DL E&C	479.2(4.8%)	한국수력원자력	27.0(2.7%)
8	SK 에코플랜트	473.3(4.7%)	두산에너지빌리티	24.9(2.5%)
9	두산에너지빌리티	453.0(4.5%)	SK에코엔지니어링	22.7(2.2%)
10	HD현대	383.7(3.8%)	롯데건설	18.4(1.8%)
-	그 외	2,795.0(27.9%)	그 외	235.2(23.2%)

③ 역대 수주실적 Top 5

(단위: 억 달러)

순위	지역	국가	공사명	기업명	수주액	계약일
1	중동	UAE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한국전력공사	191.3	'09.12월
2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공사	한화	80.3	'12.5월
3		사우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PKG 1&4, 2	삼성E&A, GS건설	73.0	'24.4월
4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 PKG MAA, MAB1, 2	GS건설, SKEP 등	72.9	'14.4월
5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	현대, GS, SK 컨소	68.4	'14.2월

* (클린퓨얼프로젝트) PKG MAA: GS건설, SK에코플랜트 / MAB1: 삼성E&A / MAB2: 대우건설, HD현대중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해외건설 대표 프로젝트

- 8 -

참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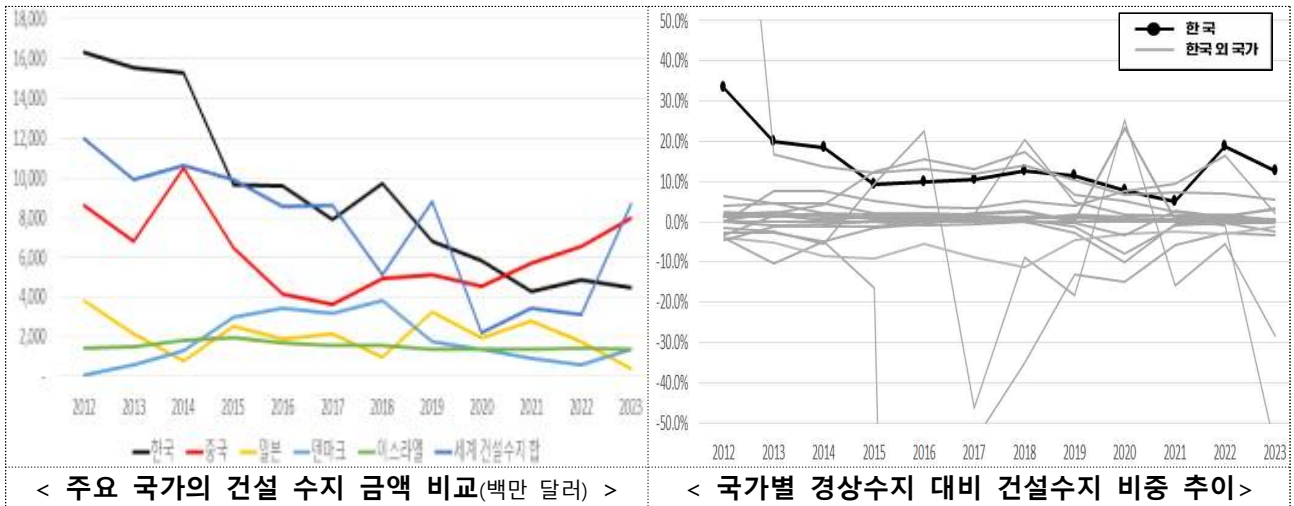
해외건설의 경제적 기여 효과 (※ 대외경제연구원 분석, '24.12)

- ◆ 해외건설은 **꾸준히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고,
그 기여 정도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 시 **세계 최고 수준**

□ 건설수지 규모 및 경상수지 기여 비중 비교

- (건설수지)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수준* 유지 중('23년 45억 달러)

* ('12~'20년) 우리나라 1위, ('21~'23년) 중국 1위, 우리나라 2위(IMF 국제수지 통계)



- (경상수지 기여) '23년 세계 20대 경상수지 대국* 중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대비 건설수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13%)

- 즉, 해외건설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

*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건설수지 포함)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 독일, 중국, 일본, 러시아, 네덜란드, 한국, 싱가포르, 사우디, 노르웨이, 스위스 등(IMF 국제수지 통계)

- 이전부터도 건설수지가 경상수지 흑자를 꾸준히 견인(약 15% 수준 유지)

※ (참고) 해외건설 수주는 관련 재화의 수출 확대 등 2차적인 효과*를 창출해
경상수지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확대에도 기여

* 직접투입재화는 해외건설수주 1달러당 0.25달러, 모든 재화로 확대 시 최대 1.03달러의 수출확대효과 기대(KIEP, '24.7)

□ GDP 대비 건설수지 비율 비교

- '23년 세계 20대 경제대국 중 우리나라는 명목 GDP 대비 건설수지 비율이 가장 높아(0.24%)*, 해외건설의 기여도 또한 가장 높은 수준

* 대부분의 국가는 -0.01~0.01%에 머무르나, 한국의 경우 0.22~1.22% 수준('12~'23 기준)

참고4

'24년 해외건설 수주통계 현황

□ 연도별 수주현황(2015년 이후) * '65~'24년 누적 수주액은 1조 9억 달러(16,506건)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수주액(억 달러)	461.4	281.9	289.6	321.1	223.2	351.3	305.8	309.8	333.1	371.1
수주건수(건)	697	607	624	661	667	564	499	580	606	605

□ 지역별 수주현황

구 분	2024		2023		전년 대비 증감률(%)
	수주액 (억 달러)	비중 (%)	수주액 (억 달러)	비중 (%)	
중동	184.9	49.8	114.3	34.3	61.7
아시아	71.1	19.2	67.9	20.4	4.8
유럽	50.5	13.6	21.0	6.3	139.7
북미 등	46.9	12.6	103.1	31.0	△54.5
중남미	15.2	4.1	14.7	4.4	3.5
아프리카	2.5	0.7	12.1	3.6	△79.3
합계	371.1	100.0	333.1	100.0	11.4



□ 국가별 수주현황(상위 5개국)

순위	2024			2023			2022		
	국가명	수주액 (억 달러)	비중 (%)	국가명	수주액 (억 달러)	비중 (%)	국가명	수주액 (억 달러)	비중 (%)
1	사우디	119.0	32.1	미국	99.8	30.0	인니	36.7	11.8
2	카타르	47.5	12.8	사우디	94.9	28.5	사우디	34.8	11.2
3	미국	37.4	10.1	대만	15.1	4.5	미국	34.6	11.2
4	헝가리	27.5	7.4	카자흐	10.1	3.0	이집트	27.8	9.0
5	세르비아	16.6	4.5	나이지리아	8.9	2.7	카타르	16.5	5.3

□ 공종별 수주현황

구 분	2024		2023		전년 대비 증감률(%)
	수주액 (억 달러)	비중 (%)	수주액 (억 달러)	비중 (%)	
산업설비	243.0	65.5	157.8	47.4	53.9
건축	52.4	14.1	121.4	36.5	△56.9
용역	38.1	10.3	16.7	5.0	128.6
전기	19.9	5.4	18.0	5.4	10.7
토목	17.2	4.6	19.0	5.7	△9.0
통신	0.5	0.1	0.2	0.1	195.4
합계	371.1	100.0	333.1	100.0	11.4



□ 사업유형별 수주현황

구 분	2024		2023		전년 대비 증감률(%)
	수주액 (억 달러)	비중 (%)	수주액 (억 달러)	비중 (%)	
도급	319.4	86.1	318.5	95.6	0.3
투자개발	51.7	13.9	14.6	4.4	253.1
합계	371.1	100.0	333.1	100.0	11.4

